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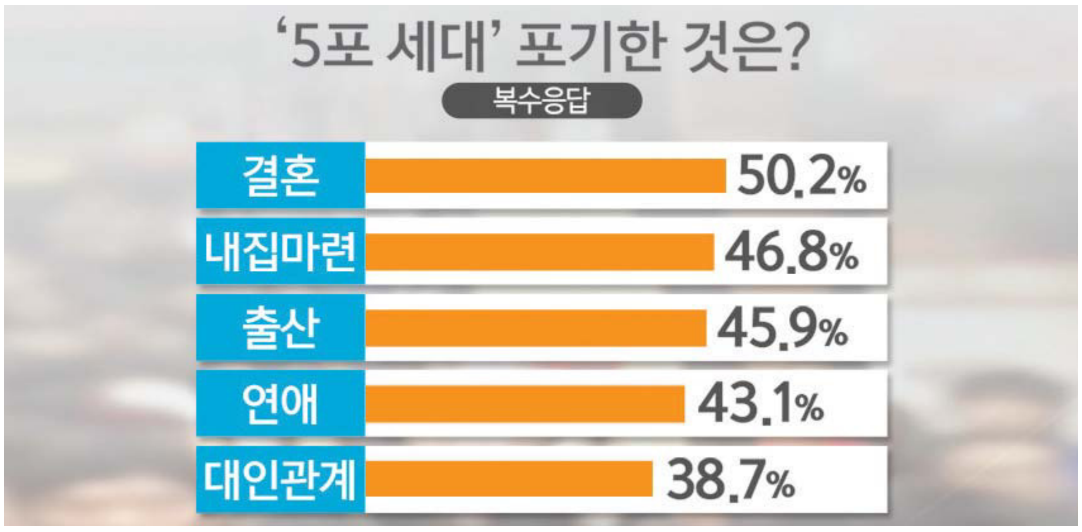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제330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8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1995.95	(+19.46)
코스닥	690.18	(+19.13)
금리(국고채 3년)	1.64	(−0.04)
환율(원·달러)	1162.00	(−5.50)

헬조선 흙수저는 좌절중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인생에서 하나 둘 포기할 것만 늘어난다는 청년세대들의 자조섞인 한 여론조사 결과. /출처=YTN

세습재벌 경제에 그들만의 정치 "열쩡 노오력도 소용없는 세상" 비전잃은 청년들…날로 극단화

20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야권 정치인의 입에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다',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비단 야권 정치인의 눈에만 중대한 문제로 비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최우선 목표다. 박 대통령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를 부르고 있다.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국가, 빚 지고 토굴 같은 단칸방에서 죽지못해 사는 자들이 재벌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국가"이자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는게 당연하지만, 직원은 회사의 내부사정에 간섭하면 실직 당하는 국가"이다. 또 "기업이 애국심으로 돈버는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국민이 기업에 애민심을 요구하면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국가"이고 "내 돈은 국가 돈이고, 국가 돈은 기업 돈이고, 기업 돈은 재벌 돈이고, 재벌 돈은 매년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가"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인식이다.

일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 역시 신랄하다. 대한민국은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강간하고 남학생을 착취,학대,구타,인분을 먹여도 다른 교수들이 탄원서를 써줘서 피해학생이 나쁜놈이 되는 국가, 그 교수에게 이쁨 받으려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내성적이고 비사교적 성격탓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학교 친구인 국가"이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국가"이자 "매국노가 고위층이 되어 잘만 살아가는 국가, 군대 면제된 매국노의 후손들이 군필한 일반 국민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호통치는 국가"이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성수저설(인간은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수저의 재질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신조어) 이론이 완벽히 성립됨을 입증한 표본국가"로 인식한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 등으로 세분된 암묵적인 신분제도가 헌법 위에서 군림한다는 인식이다. 게다가 모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흙수저와 똥수저도 '노오오오오오력'(노력의 강조 표현)하면 언제든지 계층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요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세상 모든 문제가 내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인 국가, '열쩡'(열정의 강조 표현)과 노오력 두 단어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서 취업을 못해도 개개인의 노오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이다.

또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국민성금을 모아야 하는 국가, 그러다 정작 국민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문제를 해결해달라 주장하면 체제를 위협하는 빨갱이나 선동분자가 되는 국가"이다.

이들은 모순의 해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탈출"을 말하거나 "죽창을 달라"와 같은 과격한 체제전복 발언까지 언급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모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병형 기자



일, 첫 전쟁상대는 북한?

미·일-북·중 대립구도 구축 한반도 전쟁 공포 가시권

지난 19일 일본의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조선(북한)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안 통과의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은 미·일 대 중국의 대립 구도 사이에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11개의 안보법안들 중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안보법안을 심의 중이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긴밀한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도중) 북한 잠수함 수십척이 출항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밝힌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은 이제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 만큼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Unfinished 'Yongsan tragedy'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A lack of protection for tenant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causing problems.

The compensation that the tenants could receive by the law is only 4 month worth of business losses and the costs of removal.

Only way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ir own assets and support payment is to file civil law suits.

It costs them massive amount of legal costs and time an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win the lawsuit against the developer who has better financial ability.

Thus, the forced demolition concerns people since it could possibly result in another 'Younsan tragedy'.

Legal experts say that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not satisfactory to cover tenants' business losses.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시 상가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관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철거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4개월치 영업 손실비와 이사비가 전부다. 기습철거에 따른 재산상실이나 위자료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세입자가 재력을 갖춘 시행사를 이기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거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등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해 역사적인 열흘간의 쿠바·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수천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프란치스코 형제여, 당신은 이제 쿠바인"이라고 외치며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다.

▲ 중국이 최근 마하 5(음속의 5배)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등 군사력 면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

▲ **신당** 창당을 준비해 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재신임' 정국을 틈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에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당내 친노무현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의 새끼들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가 선정됐다.



추석 명절 앞두고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20일 강원 춘천시 퇴계동 성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춘천지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강원서부하나센터에서 해마다 주관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노사정 합의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8일 항의공문을 보냈다.

▲ **한국관광공사**의 방만경영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2014년 성과급 부적정 지급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관광공사의 방만경영 실태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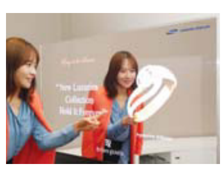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이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할을 하게 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조사한 "원지동 부지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 **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전액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불해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이 원래 피해자인 주모(35·여)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산업·경제



▲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증권업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하반기 경영실적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 **삼성전자**가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7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 판매 부진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업계** '**빅3**'가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 **건설사**들이 최근 천편일률적인 평면에서 벗어난 이른바 '틈새면적'으로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기존 주택형에서는 보기 힘든 특화 설계와 공간 활용으로 수요층에게 인기가 있다.

▲ 서희그룹(회장 이봉관)이 전국 '로그인'(LOG IN) 편의점을 인수해 '독립형 편의점'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서희그룹은 이달 초 '**로그인편의점**' 96개 점포를 인수해 가맹점주가 100% 매출을 확보하는 독립형 편의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하반기 인수합병 대어로 꼽히는 **코웨이**가 외국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조원에 이르는 몸값에 국내 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는 반면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코웨이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내달 코스피시장 상장을 앞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세진중공업**이 조선 업황에 꽁꽁 얼어버린 투자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상장을 철회했다.

▲ **한국거래소**가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재출,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서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를 넘으며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원금 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가입한 지 10년도 안 돼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한반도 파병 논란, 아베도 '오락가락'

**"당사국 동의 필요" 립서비스만
정작 법안에서는 명시 없어
한국 정부도 립서비스만 맹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법제화한 안보관련법안들이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단자위권법안의 의회 통과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이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일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법안 통과시 법률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오가와 도시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집단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답변은 집단자위권을 활용해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후속 질문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처음에는 법안의 내용 중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한국이 어떤 무력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의 존립과 무관하다는 말인가'라는 추궁을 받자 "해외 파병 전반은 헌법에 금지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는 당국자의 조언을 받은 뒤에는 "자위대법 88조 2항에 '무력행사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오가와 의원은 "법률에는 (한반도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일 통과된 무력공격사태법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거론하면서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의회를 통과한 11개의 안보법안 중 집단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은 유엔 차원의 집단안보 조치 등 공격받은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해 아베 정권이 영역국 동의나 요청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metroseoul.co.kr

"평양이든 어디서든 대화하자"

美 측 성김 대표, 대북 메시지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에는 진정성이 담겨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 상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6자회담 재개 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를 놓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6자회담의 재개이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편으로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두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도발행위를 자제할 것을 진정으로 희망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또는 위성의 발사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군 장병 56만명에 창군 이래 첫 '특별휴가증'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면서 56만여명의 장병이 이 혜택을 보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특별휴가증을 받는 장병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이다. 이들은 전체 국군 67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다.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온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와 포격 도발 당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위기 상황 시 일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과 충성심을 발휘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의 배경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송시우 기자

천정배 "내년 1월 중 창당작업 마무리"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 호남 넘은 전국정당 지향

문재인의 '접점 가능' 발언에 "5월 만남 유일… 싱거운 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단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창당을 준비해 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문재인 재신임' 정국을 틈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오는 12월까지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중에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목표에 대해 △기득권에 맞서는 야당 △기본이 채워지는 삶의 실현 △혁신경제 실현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 △국민과 민심을 받드는 정당 △청년의 정당 △당원이 자부심을 갖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정당,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개인적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준비해 온 신당은 이제까지 '호남 신당'으로 통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호남, 특히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신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역정당이 아닌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저는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제 자신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동, 경제, 인권 등 자기 분야와 풀뿌리 지역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모시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 의원과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야권은 단일 정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표를 만난 것은 5·18 기념 전야제 때가 유일하다"며 "그야말로 싱거운 만남이었다. 그 때도 솔직히 '이 분 참 싱거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접점도,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해 희망으로 만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기득권 독점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성 정치인도 배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외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이른 시일 내 새정치연합 탈당 의사를 밝힌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정당을 만들면 총선과 대선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지금 몇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함께할 인사들과 차차 소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靑 새식구는 평화·통일·금강·한라·백두"

朴 대통령, 강아지 이름 공개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의 새끼들 이름으로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가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이 새롬이의 5마리 강아지들은 이젠 눈도 뜨고 어미 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좋은 이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많은 생각 끝에 장석원님께서 지어주신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토종이자 천연기념물인 갓 태어난 진돗개들이 국민 모두의 열망인 통일이 이뤄지는 날까지 각자의 이름대로 그 기백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름 짓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새롬이의 새끼 5마리의 이름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진돗개 새끼 5마리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댓글을 통해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새끼를 낳은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는 2013년 취임 당시 서울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선물받았다. /송병형 기자

안철수 "새정치, 대법 판결도 불복"… 친노에 직격탄

정계입문 3주년 간담회
당내 부패척결 목소리 높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요구



안철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당내 친노무현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부패 척결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 부패 척결은 안 의원이 주장하는 3대 근본적 혁신(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중 하나이다.

안 의원은 부패 관련자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에 요구했다.

그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 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당 연대책임제를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당정청, 연말까지 취업규칙·일반해고 기준 마련키로

5대 노동개혁 법안 정기국회 처리 총력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6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2	14	15	24	27	32	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991,158,62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4,511,290
3등	5개 숫자 일치	1,330,82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與·노사정 불협화음… 대타협 '파기예고'

새누리당, 독자적 노동개혁 법안 발의
한국노총 "5대 입법, 노사정 합의 위배"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과 노사정합의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8일 항의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선언' 가능성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 발의 '노동개혁법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확대 부분이다.

대타협 합의문에서는 두 의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로 대안을 합의하면, 법안 의결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여기에 파견근로자법도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 업무는 허용하고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은 제한하기로 발의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지난 16일 새누리당은 5대 노동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이를 정부안이라 밝혔다"며 "5대 노동 법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의 5대 법안 내용 중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간제 사용기간과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업무, 고령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둘째, '실업급여제도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지급기간, 지급대상 확대)' 의제다. 노사정은 이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보험료 인상 등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셋째, '기타 휴일근로 가산할증률(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 감액조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일방 도입' 등이다. 이 내용은 논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항의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합의가 전혀 없는 부분까지 입법을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합의문을 왜곡·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9·15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무효라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편 당·정·청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김기춘 비슷한 외모로 억대 사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통치자금 관리부서 친척행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그의 친척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와대 산하 통치자금 관리부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청와대의 비밀 통치자금 1280조원이 22명의 차명계좌에 나뉘어 들어있다"면서 "이를 공식자금으로 전환하는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2억원을 돌려주고 추후 공로금 30억원도 주겠다"며 하모(80·여)씨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통령 통치자금 관리 부서인 '국고국'에서 일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의 경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닮은 용모를 이용해 그의 6촌 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얼굴이 김 전 실장과 아주 많이 닮았다"며 "직접 김씨를 보고는 외모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하씨 등에게는 '통치자금 존재 사실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도 쓰게 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이달 초 이들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국고국이나 청와대 비밀 통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행자부 "산하기관 8곳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행정자치부는 산하기관 8곳 전부가 임금피크제를 연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정부가 권고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다음달 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유선준 기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法 "구 자동차관리법, 경미한 결함은 시정조치 않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구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1항 1호는 연비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다.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를 표시해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선준 기자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폐기

내달부터 안전이용수칙 홍보



2007년부터 시행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이 폐기된다.

국민안전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기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수칙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지하철 등에서 홍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부처,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4개 기관은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 손잡이 잡기 ▲ 걷거나 뛰지 않기 ▲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로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수칙을 최근 정했다.

2007년부터 지하철 등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은 중단한다.

이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한 줄 서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줄 서기 방법 자체를 캠페인으로 삼는 사례가 없다.

도시철도공사 등 에스컬레이터 운영 기관은 새 안전이용수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음달부터 뛰는 이용자를 계도하고 경고방송도 할 방침이다.

혼잡한 역사는 1분당 30m 속도를 유지하고 노인층 이용자가 많은 역사는 1분당 속도를 25m로 낮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위생을 이유로 손잡이 잡기를 기피하는 이용자를 고려해 청소·소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아울러 사고 감축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 의무화(2014년 7월1일) 이전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도 2018년까지 모두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운영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돌아온 유커 6~7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자취를 감췄던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다시 몰려 들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6~7월 메르스 사태 당시 매출이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8월을 포함해 최근 한달 보름여 사이 유커 소비가 극적으로 많이 늘면서 완전히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유커 등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는 명동거리. /연합뉴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오늘부터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서

경찰청은 21일부터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제출로 대체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연계돼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제작됐을 때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했을 때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유선준 기자

틱장애 고쳐준다더니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징역"

원심이어 4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틱장애'가 있는 A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태권도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다.

결국 A씨는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선준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할 때 까지

당신의 아들딸이 되는 효나누미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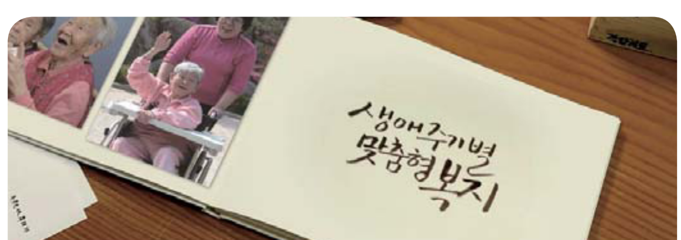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 도서 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 시설급여 서비스

급여이용 본인부담

- **일반대상자** : 시설20%, 재가 15%(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50%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LG-삼성 디스플레이, 하반기 명암 갈리나

LG LCD 가격하락에 압박
삼성 OLED 패널 확대에 호조

올 하반기LG디스플레이는 먹구름이 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웃음이 일 전망이다.

20일 증권업계와 전자업계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하반기 경영실적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LG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약 39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에 7440억원, 2분기에 48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가격하락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4분기에도 LG디스플레이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패널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TV 시장 부진으로 인해 패널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양면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제공

신현준 LIG 투자증권 연구원은 "TV 시장 수요 부진은 패널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G디스플레이의)유기발광다이오드(OLED)투자가 빛을 발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3분기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이익을 약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LCD부문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OLED 가동률 상승이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갤럭시S6엣지+ 등 플래그십 모델은 물론 갤럭시 A·E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향 스마트폰의 OLED 탑재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국향 OLED 패널 비중은 2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패널도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플렉시블 OLED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가동률이 저조한 A2 라인을 플레시블 OLED 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공장인 A3는 플레시블 OLED 전용 라인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적신호'

새로운 성장 동력 찾아야

삼성전자가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 판매 부진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증권사 22곳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는 6조6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고난 뒤인 지난 7월17일 컨센서스(7조622억원·24개 증권사)보다 6.39%나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유안타증권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을 6조 3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키움증권(6조1500억원)과 KB투자증권(6조3450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6조4020억원) 등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게 잡았다.

이재윤 유안타증권연구원은 "올해 3분기 IM(IT·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이 2조8억원으로 종전 예상치를 12% 하회할 전망"이라며 "전체 스마트폰 물량은 성장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나 저가형 위주의 성장으로 수익성이 전분기보다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도 3% 수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수기를 맞은 PC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이끌었던 반도체 부문도 DRAM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전망이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49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DRAM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고 스마트폰 수익성이 낮아져 원화 약세에도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하드웨어 위주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5만명을 양성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 중인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위주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만들지 못한다면 스마트홈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 사이에 끼어 고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플랫폼을 지배하는 회사가 스마트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에서 성공한 적 없는 삼성전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 의심스러워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 30만원대 메탈폰 'LG클래스' 선보여

오늘 이통3사 통해 출시

LG전자가 21일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 30만원대 첫 슬림 메탈 스마트폰 'LG 클래스'를 출시한다.

LG전자는 'LG 클래스'에 좌우 양쪽이 둥글게 마감 처리된 5인치 곡면 글래스와 디자인을 적용해 그립감과 심미성을 높였다.

곡면 글래스는 입체감 있는 화면을 구현한다. 또 스마트폰 위아래 메탈 표면에 후면 메탈과 다른 톤의 색상을 입혀 세련미를 더했다.



LG 클래스 제품이미지(왼쪽부터 'LG 클래스' 골드, 블루블랙)

'LG 클래스'는 'LG G4'와 동일한 이미지센서를 그대로 내장한 프리미엄급 800만화소 전면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에는 1300만화소 후면카메라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1.5m 떨어진 곳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편 손바닥을 두 번 쥐었다 펴면 약 2초 간격으로 연속 4장의 셀피 촬영이 되는 '제스처 인터벌 샷' UX(사용자경험)을 추가했다. 또 셀피 촬영 시 간단한 설정으로 피부톤과 잡티를 제거하는 '뷰티샷' UX도 선보인다.

LG전자는 보급형에서도 만족스러운 사운드 기능을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해 'FM라디오'기능과 '1W 스피커'를 담았다. 또 외장 SD카드 슬롯을 제품 측면에 내장시켰고 내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2TB 저장용량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G 클래스'는 3가지 색상(골드, 실버, 블루블랙)의 메탈 폰으로 출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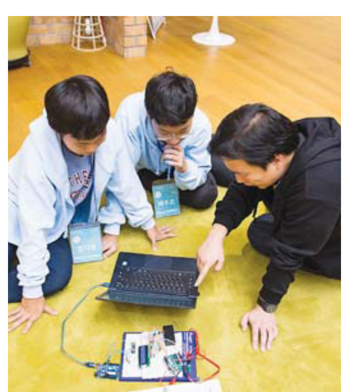
삼성, 주니어 SW 창작대회 '부트캠프' 개최

임직원 40명 멘토 참여

삼성전자는 제 1회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본선 진출 60팀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미래창조과학부와(이하 미래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가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초(4학년 이상)·중·고 학생들이 제안한 1000여 건의 예선작 가운데 60개 작품이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 학생과 지도교사 190여명은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부트캠프에 참가했다.



19~20일 이틀간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부트 캠프(Boot Camp)'에 멘토로 참가한 삼성전자 직원들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작품에 대해 멘토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 40명도 부트캠프에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기획·UX 등 전문 분야에서 멘토링을 제공했다. 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디어 아트·빅데이터·의료 서비스 등과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사례를 소개하는 다양한 특강도 마련됐다.

오는 11월 13일 본선에 진출한 60팀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 2팀, 최우수상 6팀, 우수상 6팀, 지도교사 2명에게는 총 57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며 소프트웨어 심화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대상 수상팀 전원은 내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초대된다. /양성운 기자

타이어 3사, 야심작 공개… 유럽질주 '시동'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한국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 3종
폭우 등 이상기후 맞춤 설계
금호
전기차용 초경량 '와트런'
공기누출 차단 '실란트' 선봬
넥센
런플랫·흡음제·천연오일 등
첨단기술 접목 특수제품 전시







①한국타이어 부스. ②금호타이어의 실란트 타이어. ③넥센타이어 부스.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업계 빅 3가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3사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첨단을 달리는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각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 3종을 전시했다. 해당 타이어는 사막화,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 상황을 고려해 개발됐다.

부스트랙(Boostrac)은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콘셉트'에서 타이어 업계 최초로 최우수상(Best of Best)을 수상하며 디자인 역량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타이어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더 넥스트 드라이빙 랩(The Next Driving Lap)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마인드 리딩 타이어(Mind Reading Tire) 차량 등을 전시했다.

또한 유럽 시장을 겨냥해 글로벌 기술력이 집약된 겨울용 타이어 신상품 2종을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부회장)는 "미래 드라이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혁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콘셉트 타이어를 통해 유럽 시장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브랜드와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개발한 초경량화제품 '와트런(WATTRUN)'을 전시했다.

또 펑크 시 자가봉합(self-sealing) 기능을 통해 공기 누출을 막아주는 실란트 타이어와 안전 주행을 위한 런플랫 타이어 등을 전시했다.

와트런은 전기차(EV) 전용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중량을 25% 낮춘 친환경 타이어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가솔린)보다 배터리 무게(약 200kg 이상)가 더 나가 차량이 무겁다.

때문에 전기차 전용타이어는 고하중·고출력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다.

금호타이어는 약 2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거쳐 와트런을 완성했다. 저소음을 구현했으며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 탁월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부터 르노삼성의 전기차 SM3 Z.E.에 단독으로 전용타이어를 공급해오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13개 제품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존에는 런플랫, 실런트, 흡음제, 천연오일 타이어 등을 전시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회사의 품질과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19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에 위치한 '광주공종합센터'를 방문해 떡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외국인 유학생 '창조경제' 현장체험

현대차 '글로벌 프랜드십 투어'
480명 초청 '韓 홍보대사' 육성

현대자동차그룹은 18~19일까지 '2015 글로벌 프랜드십 투어' 행사를 열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프랜드십 투어는 유학생들에게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국에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9000여명의 유학생들이 참가했다.

첫 날 참가 학생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의 조립라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철강 제조 과정을 비롯해 광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본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창조콘서트에 참여했다.

창조콘서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광주에서 꽃피운 창조경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둘째 날 외국인 유학생들은 남도 음식만들기, 케이-팝 댄스배우기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방문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한국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될 주역들"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각 국에 한국을 알리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박삼구, 한·일 최대규모 민간교류행사 이끈다

금호아시아나 '한일축제한마당'
교류 확대 동반자 관계 밑거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20일부터 '한일축제한마당 2015 인 서울'(이하 한일축제한마당)을 신촌 연세로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에서 시작해 양국에서 열리는 문화교류행사다.



이번 행사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19일 신촌 연세로에서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 기념퍼레이드를 벌였다.

20일 코엑스에서는 한국과 일본 공연단체의 무대공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한일축제한마당이 양국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계기가 돼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8년부터 일본에서 '금호아시아나배 일본지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일본 행사는 26~27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개최된다. /정용기 기자 yonggi@

금호타이어 노사, 파업 유보·직장폐쇄 해제

오늘부터 생산라인 정상 가동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을 유보하고 직장폐쇄를 해제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만 가동됐던 생산이 21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금호타이어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8월 17일 전면파업 돌입 이후 36일만이다.

또 이는 금호타이어가 직장폐쇄를 단행한지 16일만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0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단체교섭 진행경과와 차기 집행부 선출 일정에 대해 논의 했다.

그 결과 미뤄왔던 선거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공식 문서를 통해 '파업을 유보하고 7기 임원선거를 실시할 것'과 '9월 21일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것'을 사측에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39일간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150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선거체제 돌입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됨으로써 이번 단체교섭은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노조 집행부가 바뀔 경우, 단체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의 파업이 유보는 다행스럽지만 노조의 선거체제 돌입으로 단체교섭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우려된다"며 "회사는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상도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KAI, 한국의 '록히드마틴' 꿈꾼다

하성용 사장 "경쟁력 확보위해 R&D 인프라 확보할 것"


하성용 KAI 사장.

한국의 '록히드마틴'을 꿈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독자·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AI의 상반기 매출액의 61%(7924억원)가 수출에서 나왔다. KAI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조3003억원, 영업이익 1336억원, 당기순이익 1006억원을 기록했다. KAI는 2020년 목표 매출 10조원의 80%를 수출과 MRO(항공정비) 등 민수사업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경공격기 모델 FA-50이 포함된 T-50 항공기 계열은 매출의 42.5%를 차지해 KAI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KAI는 태국 공군과 1284억원 규모의 T-50TH 4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하반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KAI가 1999년 설립 후 16년간 군수 국책사업 수행경험을 통해 기본 기술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성용 KAI 사장이 제시한 매출의 80%가 수출인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독자·원천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KA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 개발사업도 록히드마틴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KF-X 기술이전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통제하는 미국정부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KAI는 해외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R&D(조사연구)부문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KAI의 기술개발비는 476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67억원)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KAI는 624건의 국내특허를 갖고 있다. 또 등록된 해외특허 7개와 출원 중인 해외특허 5개 등 총 12건의 해외특허를 갖고 있다.

세계 항공 산업은 미국의 보잉·록히드마틴, 유럽의 에어버스 등 3대 업체가 포함된 10대 대기업이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KAI는 이들 주요 업체들과의 공동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출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KAI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T-X)수주 경쟁에 나섰다. T-X 사업은 고등훈련기 350대 수출, 지상훈련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삼성SDS가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스마트 브릿지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IT소외계층 위해 함께 걸어요"

삼성SDS

'스마트 브릿지 걷기대회' 임직원·송파구민 등 참여

삼성SDS(대표 전동수)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임직원과 가족 약 3400여명과 송파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스마트 브릿지(smart Bridge) 걷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삼성SDS의 사회공헌 비전에 걸맞게 IT 소외계층을 후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콘셉트로 마련된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SDS와 송파구가 함께 마련했다. 올해는 특별히 삼성SDS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마스코트 4남매인 솔루(Solution), 세비(Service), 다타(Data), 에이나(Analytics)와 송파구 마스코트 잠누리, 잠에리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삼성SDS는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응원하는 동료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기부금 총 6000여만 원을 송파구 내 IT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행사장 내 먹거리 장터의 음식과 재료를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섰다.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액 역시, 지역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으로 사들여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스마트 브릿지 정신을 이어나갔다.

삼성SDS는 또한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임직원들로 구성된 클린 수비대를 결성해 행사장과 주변 하천을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석구석을 돌며 환경 정화를 하면서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도 나섰다.

삼성SDS는 그 동안 정기적으로 송파구 내 초·중학교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 예방 교육은 물론 책 기증 캠페인, 벽화 그리기 봉사, 노인정에 IT 기증과 교육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T, 가상화 교환기 'vIMS' 국내 첫 상용화

HD 보이스 서비스에 도입 예정 음성트래픽 증가 대처 빠를 것


SK텔레콤이 음성 서비스를 위한 핵심장비인 교환기를 가상화시킨 'vIMS'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HD Voice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vIMS'를 SK텔레콤의 구성원들이 운용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장비인 교환기를 가상화한 'vIMS'(virtualized IP Multimedia Subsystem)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HD 보이스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상화는 기존의 하드웨어 형태의 네트워크 장비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 범용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교환기는 고객의 음성 서비스 이용과 직결돼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까닭에 다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SK텔레콤은 vIMS 상용화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내 이통 3사의 LTE 기반 음성통화서비스(VoLTE) 네트워크 연동에 따른 음성 트래픽의 증가에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의 IMS 장비 구축에 수 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vIMS는 단 몇 시간이면 설치할 수 있어 향후 IP 기반의 새로운 영상, 음성, 문자 등의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의 vIMS에는 음성 서비스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고속 패킷 처리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 등의 오류 발생 시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가용성(High-Availability) 기술 등이 적용돼 HD 보이스 사용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농산물 '창조농업형 선순환 시스템' 완성

세종창조경제센터, 스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


세종시 연동면 '창조마을' 주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도담동에 개장한 '스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모바일로 실시간 체크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생산농가가 '스마트팜'(모바일 원격제어 시스템)에서 재배한 작물을 도·농간 온오프라인 직거래 시스템인 '스마트 로컬푸드'를 통해 유통시키는 '창조농업형 선순환 시스템'이 완성됐다.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와 손잡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스마트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직매장 '싱싱장터 도담도담'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종 소량생산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직거래 시스템이다.

매장은 지난달 29일 임시 개장해 2주간 시험 운영한 결과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등 약 190개 품목에서 하루 평균 2700건 거래, 약 14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매장에서는 세종시 216개 농가가 재배한 다양한 농산물과 함께 지역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세진중공업, 상장 철회… 조선업 불황 '유탄'

상장 재추진 가능성, 조선 3사 실적개선에 달려있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세진중공업의 코스피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업의 불황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 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조선3사의 실적부진에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상장을 철회하게 됐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추진한지 한달여 만이다.

세진중공업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공모가가 희망밴드인 3900~4800원을 밑돈 것이 원인이었다.

회사 측은 "조선 업황에 대한 우려와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돼 공모를 추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세진중공업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시장에 대한 투자 우려와 증시 불확실성으로 적정 수준의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쉽다"며 "참여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도 실시하기 전이라 투자자 보호상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15일 기업공개(IPO) 당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업황 불황을 이겨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의열 세진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이미 초대형 조선기자재인 Deck House와 LPG Tank 부문에서 생산력 1위의 자리를 확보 하고 있다"며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세진중공업이 상장을 철회하는 등 업황 부진 여파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진중공업은 지난 1999년 설립돼 16년 동안 고매출·고성장으로 동종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 성장한 567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오른 28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률도 각각 9%, 5% 상승했다.

세진중공업은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현재 220% 수준인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줄이고 재무 안정화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업황 부진에 따라 코스피시장 진출이 무산된 세진중공업의 상장 재추진 여부는 이제 조선 빅3의 실적 개선에 달리게 된 것.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주가는 해양플랜트 등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며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 손실은 3조318억원에 달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1조5481억원, 171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나마 최근 한 달 사이 고강도 구조조정 소식과 대규모 수주 소식에 주가는 더디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1일 신저점 확인 이후 현재까지 29.21%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4일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서 32.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도 32.13% 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점치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형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발주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조선사의 건조 능력에 비해서는 발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조선업의 수요 부진에 따른 업황 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고객과 함께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실시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의 대한적십자사에서 고객초청 'KB사랑의 빵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KB국민은행 고객과 함께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빵을 직접 만드는 참여형 나눔행사로 기획됐다. 사진은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객과 임직원들. /KB국민은행 제공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21일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 (MoM)	–1.6%	2.0%
22일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0.4%	0.2%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지수		–6.9
23일	중국	9월	Caixin 제조업 PMI	47.8	47.3
	유로존	9월	Markit 제조업 PMI		52.3
	유로존	9월	Markit 서비스 PMI		54.4
	유로존	9월	Markit 합성 PMI		54.3
24일	미국	8월	내구재수주 (MoM)	–2.3%	2.2%
	미국	8월	내구재수주–운송제외 (MoM)	0.2%	0.4%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MoM)	1.6%	5.4%
25일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102
	일본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1%	0.2%
	유로존	8월	M3 (YoY)		5.3%
	미국	2Q	GDP (확정치) (QoQ)	3.7%	3.7%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87	85.7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분산투자＋세제혜택 누리세요"

미래에셋證 '연금저축계좌'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에셋증권의 분산투자상품인 연금저축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연금상품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연금만으로도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펀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 세금이 붙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세제혜택과 과세이연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 연금저축계좌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만큼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금저축계좌이체 제도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보배 기자

'공매도 규정 위반' KDB대우證 경고

한국거래소 "향후 규정 위반 시 엄정한 조치 취할 것"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지난 18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일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이 매도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배 기자

경기악화… 보험부터 줄인다

종신보험 가입자 63.9%
10년도 안돼 중도 해지
가입자 원금손실도 감수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가입한 지 10년도 안돼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생명보험사가 2005년 8월 중 맺은 종신보험 신계약 중 2015년 6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36.1%에 불과했다. 무려 63.9%가 해지했다는 말이다.

계약유지율은 현대라이프생명이 10.1%로 가장 낮았고, 외국계 생보사인 AIA생명이 49.%로 가장 높았다.

'빅 3'인 삼성생명은 32.2%,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6.6%와 40.7%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통 가장이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까지 보장되고 사후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월 내는 보험료도 최소 10만원 이상인데다 납입 기간도 10~20년이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경기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가계의 여유자금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고객들이 저축성보험보다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먼저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중 종신보험 민원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종신보험을 선택하기 전에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신한은행, 모바일 환전전용 ATM 오픈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환전 전용 ATM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여행객을 위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 'Speedup 누구나 환전'의 전용 ATM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에 설치된다. 고객들은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ATM에서 외화를 받으면 된다. 모델이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금감원 Q&A

만성질환 보유자, 가입문턱↓ 혜택↑

Q.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질병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A.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매우 제한적이며, 보장범위도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고혈압·당뇨병을 보유한 국민들도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암 또는 사망의 경우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현재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합니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수술 고지기간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1.5에서 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보배 기자 bobae@

법인세 면세 '좀비 상장사' 541곳

5년만에 최대 규모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가 5년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20일 재벌닷컴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4년 개별기준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이들 상장사는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311개사(17.7%)보다 95개사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도 519개사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역시 2010년의 425개사(24.2%)보다 94개사가 증가했다.

매출 기준 상위 30대 상장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0.93배), S-Oil(-6.79배), 현대중공업(-22.43배), KT(-1.64배), 대한항공 등 5개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이지만 배율이 악화된 기업도 많았다.

포스코는 2010년 15.84배에서 작년 9.16배로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도 16.17배에서 작년 9.18배로 나빠졌다.

LG화학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28.89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롯데케미칼도 작년 5.37배로, 5년 전 18.10배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롯데쇼핑은 8.43배에서 지난해 6.55배로, 현대제철은 5.93배에서 3.49배로, 대우조선해양은 9.23배에서 5.08배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동 등 '좀비 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기태 기자

스팩 합병, '옥석 가리기' 주의보

종목 매수 후 합병 취소시 원금 손실 우려

올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를 통해 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합병 대상 기업 '옥석 가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린 스팩은 33개사, 상장 예정인 곳도 6개사다.

발행주식으로 비상장사의 상장을 추진해 차익을 얻는 스팩합병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보다 요건이 간소하다. 또 미리 공모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회 상장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가 이상으로 스팩 종목을 매수할 경우 합병 취소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머스트3호 스팩은 판도라티비와의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하나머스트스팩 측은 "합병과정에서 판도라티비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감독당국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병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합병 무산 소식에 주가는 다음날인 16일 전장 대비 22% 넘게 하락해 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월 초 판도라티비와의 합병 소식에 하나머스트3호 스팩은 공모가(2000원)를 크게 웃도는 4000원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합병이 무산되자 주가는 하루 만에 급락했다.

올해 들어서 스팩 합병이 취소된 것은 하나머스트3호를 비롯해 ▲대우스팩2호와 선바이오 ▲LIG스팩2호와 엔지스테크널러지 ▲NH스팩3호와 글로벌텍스프리 등 4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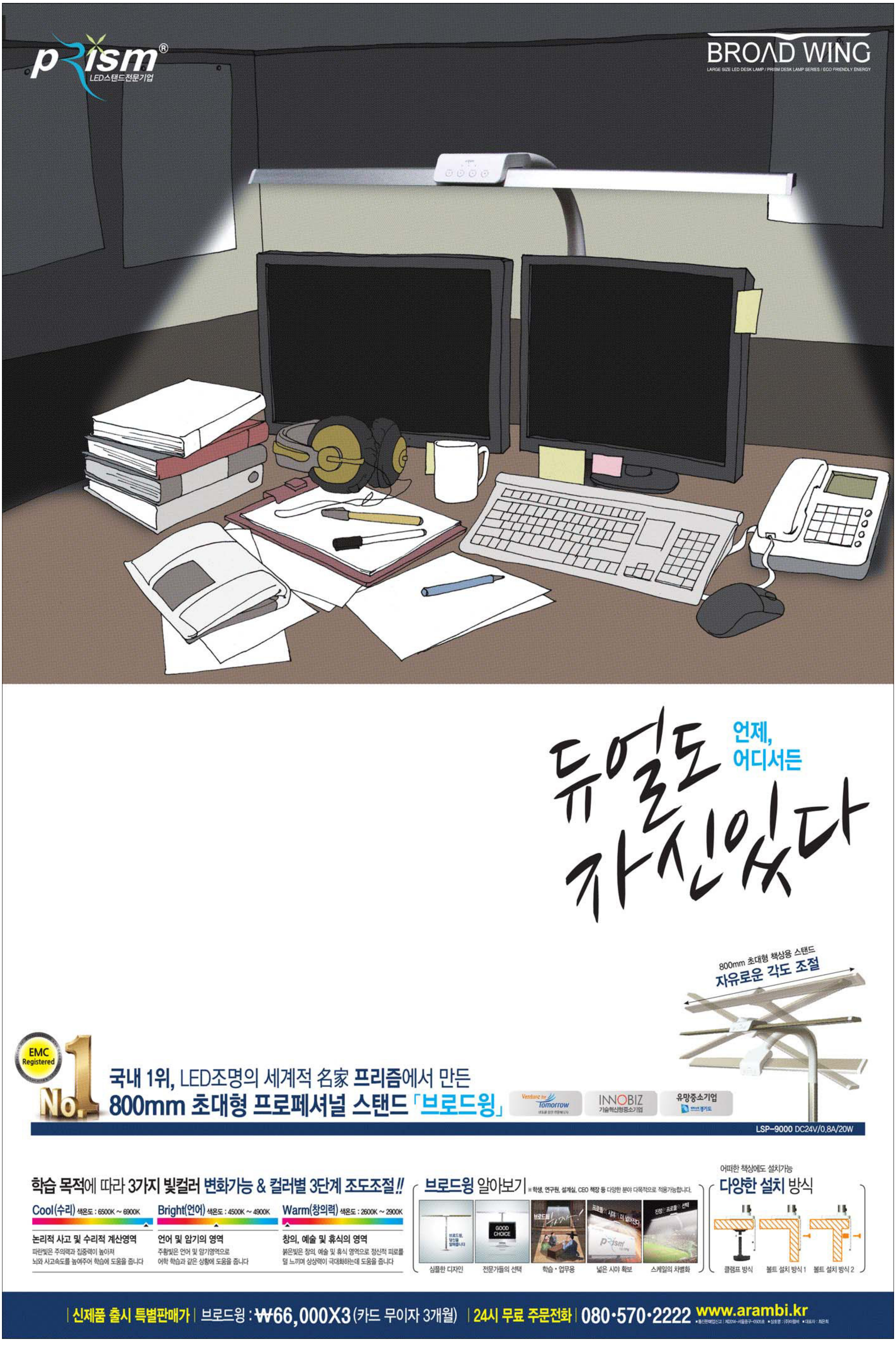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합병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고 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합병 무산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한화생명 지분 2017년까지 매각하기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2017년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 같은 매각일정이 담긴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예보는 현재 우리은행 지분 51%를 비롯해 한화생명 23%, 서울보증보험 94%를 보유하고 있다. 장부상 가격은 우리은행 3조5000억원, 한화생명 1조6000억원, 서울보증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차기태 기자



prism®
LED스탠드전문기업
BROAD WING
LARGE SIZE LED DESK LAMP / PRISM DESK LAMP SERIES / ECO FRIENDLY ENERGY
언제, 어디서든
듀얼도 자신있다
800mm 초대형 책상용 스탠드
자유로운 각도 조절
EMC Registered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800mm 초대형 프로페셔널 스탠드「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드윙 알아보기 ※학생, 연구원, 설계실, CEO 책장 등 다양한 분야 다목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GOOD CHOICE
심플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선택
학습 · 업무용
넓은 시야 확보
스케일의 차별화
어떠한 책상에도 설치가능
다양한 설치 방식
클램프 방식
볼트 설치 방식 1
볼트 설치 방식 2
신제품 출시 특별판매가 | 브로드윙 : ₩66,000X3(카드 무이자 3개월) | 24시 무료 주문전화 | 080·570·2222 www.arambi.kr

공간활용 극대화 '틈새면적' 전성시대

가변형 벽체·알파룸 특화설계
77·82·108㎡ 등 주택형 인기

건설사들이 최근 천편일률적인 평면에서 벗어난 이른바 '틈새면적'으로 아파트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틈새면적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59㎡와 84㎡, 109㎡ 보다 약간 크거나 작은 74㎡, 77㎡, 80㎡, 82㎡, 108㎡ 등 이다. 기존 주택형에서는 보기 힘든 특화 설계와 공간 활용으로 수요층에게 인기가 있다.


포스코건설 펜타힐즈 더샵 2차 조감도. /더 피알 제공

아이에스동서(대표 권민석)가 지난 3월에 선보인 '동탄2신도시 에일린의 뜰'의 전용 74㎡ 주택형의 경우 두 개의 침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시공해 가족 서재형이나 침실 통합형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부 공간을 활용하게 한 결과 모든 타입을 제치고 가장 높은 청약률인 109.6대 1(전체평균 12.8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달 청약접수를 실시한 '세종 우남퍼스빌'의 전용 50㎡ 타입도 측벽 가구에 위치하는 장점과 함께 침실에 서비스 공간을 들여 가장 높은 44.2대 1(전체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개성있는 공간 활용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면적을 세분화시켜 다양한 주택형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가을 분양시장에 아파트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만큼 건설사들 또한 다양한 틈새면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이 10월 경북 경산시에서 분양하는 '펜타힐즈 더샵 2차'가 대표적인 예다. 이 단지는 중소형과 중대형에서 틈새면적을 내놨다. 791가구 중 중소형 77㎡타입에서 240가구를, 중대형 108㎡타입에서 103가구를 선보인다.

반도건설(대표 권홍사)은 같은 달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82㎡를 공급한다. 알파룸과 펜트리, 안방서재 등 앞서 공급돼 높은 호응을 받았던 반도유보라만의 설계들도 갖췄다.

대우건설(대표 박영식)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에 74㎡형을 내놓는다. 1956가구 중 5% 가량인 108가구가 틈새면적이다.

동광건설(회장 황금추)은 화성 남양뉴타운에서 공급하는 '화성남양뉴타운 동광뷰엘'에 80·82㎡를 선보인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오산세교자이'와 '신동탄파크자이1차'에 틈새면적을 도입했다. '오산세교자이'는 75·83㎡을 분양한다.

83㎡타입은 3면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타 상품보다 4~5평 정도 늘어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신동탄파크자이1차'는 982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6가구가 틈새면적이다. 76㎡타입이 392가구, 100㎡타입이 184가구다. 특히 100㎡의 경우 전 가구 남향 배치에 4베이와 알파룸, 팬트리, 마스터존 등 특화 설계가 도입된다.

금강주택(대표 김충재)이 10월에 공급하는 '군포 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주 평형을 74㎡형으로 선택했다. 658가구 중 절반 이상인 442가구가 74㎡형으로 구성된다. 74㎡형은 4베이 구조에 다용도 알파룸과 가변형 벽체, 다양한 수납공간 등 혁신 평면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대림산업(대표 이해욱)도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 틈새평면을 선보인다. 전용 44~103㎡, 6800가구 중 초미니로 지어지는 전용 44㎡ 686가구를 비롯해 65㎡, 90㎡, 97㎡, 103㎡ 등을 갖추고 있다.

효성(대표 김영배)은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에서 73㎡타입 559가구가 틈새면적이다. 또 122㎡ 5가구(펜트하우스)와 123㎡ 30가구(테라스하우스) 등도 공급할 예정이다.

일성건설(대표 강영길)도 후평동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에 68㎡타입의 틈새면적을 선보인다. 1123가구 중 5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은 '가정 호반베르디움 센트럴' 980가구 중 틈새면적 73㎡타입 593가구를 내놨다.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의 '성북역 롯데캐슬'도 틈새평면을 공급한다. 전용 84~99㎡ 아파트 2356가구 규모다. 99㎡ 타입은 판상형으로 3면 개방에 4.5bay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98억 규모 시흥 휴게소 신축 수주

동부건설

3층 높이·54m 길이 상공형

동부건설(대표 이순병)은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대표 김학송)로부터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198억원 규모의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104㎞) 본선 휴게시설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5만6013㎡이며 연면적 1만6700㎡이다.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 조감도./동부건설 제공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는 상하행선에 각각 설치되는 기존 휴게소와 달리 상하행선의 이용객이 고속도로 상부 3층 높이에 길이 54m로 설치되는 복합휴게소를 사용하는 입체적인 형태다. /박상길 기자

송도에 2708가구 '메머드 단지' 짓는다

대림산업

4253억 규모 공동주택 신축

대림산업(대표 이해욱)은 4253억원 규모의 인천 광역시 연수동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 9조2947억 3396만원의 4.58%에 해당한다.

대림산업은 6월 5일 열린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조합 창립총회에서 시공예정사로 선정됐다.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는 지하 2층, 지상 33~39층 15개동 아파트 270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공사다.

모든 세대가 전용 70~84㎡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2020년 개통예정이다. 또 입주 시기에 맞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중·고교가 신설될 계획이어서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박상길 기자

서울 매매·전세가 37주째 동반 상승

주간 매매시황

전세물량 부족 상승 도미노
신도시·경기·인천도 오름세

서울 지역의 매매·전세가가 37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0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 대비 0.34% 상승했다.

전세 상승 폭이 확대되자 6주 연속 주간 0.09%의 상승률을 유지하던 매매가가 이번주 0.10%를 기록했다. 전세물건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간 매매가 상승폭은 소폭(0.01%p)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매매·전세 모두 오름세다.

이번주 매매는 경기·인천이 0.05% 상승했고 신도시는 0.03%를 기록했다. 전세는 경기·인천 0.16%, 신도시 0.11% 올랐다.

서울은 ▲중랑 0.25% ▲금천 0.24% ▲성북 0.23% ▲은평 0.18% ▲동대문 0.17% ▲관악 0.16% ▲동작 0.14% ▲성동 0.12% ▲서초 0.11% 순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산본 0.07% ▲평촌·중동 각각 0.05%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김포 0.17% ▲고양 0.14% ▲시흥 0.11% ▲의왕 0.10% ▲파주 0.09% ▲광명 0.08%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강세다.

서울은 ▲중랑 1.21% ▲금천 0.79% ▲도봉 0.75% ▲광진 0.65% ▲은평 0.57% ▲성북 0.55% ▲동작 0.52% ▲서대문 0.51%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 0.22% ▲광교 0.17% ▲중동 0.15% ▲판교 0.12% ▲분당·산본 각각 0.10%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 0.47% ▲과천 0.45% ▲고양 0.33% ▲의정부 0.20% ▲시흥·하남·인천 각각 0.19% 순으로 이어졌다. /박상길 기자

롯데건설

동탄2 뉴스테이 진출
74~84㎡ 612가구 공급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경기 동탄2신도시 A-95블록 뉴스테이(612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착공해 2018년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형은 평형대는 전용면적 74㎡ 422가구, 84㎡ 170가구 등이다.

연 임대료 상승률은 3% 이하로 제한되며 8년 이상의 장기거주가 가능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커뮤니티 공간인 캐슬리안센터를 통해 생활가전 렌탈·카셰어링 서비스 등과 문화강좌와 홈클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롯데손해보험의 입주자 보험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롯데카드의 입주자 멤버십 카드를 통해 단지 출입과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서희그룹, 편의점 '로그인'

독립형 편의점 新시장 개척
가맹점에 100%매출 확보 등
점주에 운영권한 대폭 위임



서희그룹(회장 이봉관·사진)이 전국 '로그인'(LOG IN) 편의점을 인수해 '독립형 편의점'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20일 서희그룹에 따르면 이달 초 '로그인편의점' 96개 점포를 인수해 가맹점주가 100% 매출을 확보하는 독립형 편의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형 편의점'이란 기존의 메이저브랜드 편의점과는 달리 가맹점주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형태다.

물류와 유통망은 기업형 편의점이 가진 장점인 대기업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개인 편의점이 갖고 있는 장점인 점주의 운영 자율성은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형 편의점에서 강제 실시하던 '24시간 운영'과 휴무일 결정을 가맹점주의 선택에 맡기는 등 점주의 권한을 대폭 늘려 점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서희그룹은 자사가 보유한 휴게소 운영 노하우와 물류경험을 통해 물류비용을 대폭 낮췄고 대기업 편의점보다 저렴한 월 관리비용만을 가맹본사에 지불하게 할 뿐 가맹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 회비도 저렴한 편이다. 신세계 위드미 70만원선의 절반 수준이다.

로그인편의점은 서희그룹의 편의점사업진출 기념으로 기존·신규 가맹계약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의 본사지원금(현금)을 제공하고 신규 가맹계약자에게는 간판과 POS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희그룹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대표브랜드인 '서희스타힐스'로 잘 알려진 서희건설과 물류·철강사업, 고속도로 휴게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휴게소의 경우 특정 브랜드 없이 전국 7개 지역에서 22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안성맞춤휴게소(2913㎡), 화서휴게소(2846㎡) 등이 있으며 이들 휴게소 내 9개의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다. 서희그룹은 향후 이들 편의점도 독립형 편의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편의점시장은 90%를 대기업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가 지난해 5월 '위드미'라는 브랜드로 진출을 선언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CU'가 9042개, 'GS25'가 8951개, '세븐일레븐'은 7644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현재 2년 차에 접어든 신세계의 위드미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점포수 1000개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점포수가 830개에 그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주택분양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 건설사와 달리 대학, 교회, 병원, 군부대, 창고, 공장시설 등으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해 이 시장을 확대하고 주도하는 등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며 "편의점 업계에서도 점차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국산나물·제수용품 최대 40% 할인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추석을 맞아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국산 나물과 제수용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또 과일, 한우, 조기 등 국산 제수용품부터 식용류, 밀가루 등 명절 가공 성수품, 우리 가족 신선 먹거리 등 총 1000여 품목을 21일부터 26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KT&G 사장 후보에 백복인씨 확정



백복인 KT&G 부사장(생산R&D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사진)이 KT&G 차기 사장후보로 확정됐다.

20일 KT&G에 따르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백(51·사진) 현 부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학계·재계·정계·법조계·언론계 출신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사내외 공모를 통해 CEO 후보 선정을 진행해왔다.

이준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속 성장을 이끌 경영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장기비전 및 전략, 혁신 의지, 글로벌 마인드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백복인 부사장을 최적임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G의 전신인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채 출신 첫 CEO 후보인 백복인 부사장은 1993년 입사 이후 23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R&D 등 주요사업의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백 후보자는 "최근 회사가 대내외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CEO 후보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투명경영이 지속 성장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구태와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메르스 사태 종료… 침체된 경기 회복세

방한 中 관광객 증가
대형마트 매출도 상승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가 진정됨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대형마트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20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5만563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1%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 때문에 급감한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대형마트·백화점·재래시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은 51만3275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2.3% 감소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출 역시 상승했다.

6~7월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중국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0%, 61.3% 급감했다. 하지만 8월 -14.1%까지 회복한 중국인 매출은 이달 17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8.1%까지 늘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공항철도 종점에 있는 서울역에 있어 외국인 비중이 전체 매출의 15%가량으로 높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 추이에 따라 매출 변화가 민감한 곳이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8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국내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9월들어 지난해 수준 이상"이라며 "추석, 국경절을 앞두고 한국을 찾는 이들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계열사 밀어주기 '삼양식품' 과징금 3억원

인력 등 무상제공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계열사 밀어주기를 한 삼양식품(회장 전인장)과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내부지분율 100%에 달하는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으로 차량과 인력을 제공하며 계열사 밀어주기를 했다.

이러한 모회사의 밀어주기를 등에 업고 에코그린캠퍼스의 자산은 2010년 51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253억6900만원까지 증가했다.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삼양그룹의 중심 회사인 삼양식품은 라면류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1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실상 총수일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삼양식품이 48.4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양그룹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3%, 그리고 총수일가가 직접 20.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양식품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 동안 자신의 소속 직원과 임원으로 하여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2007년부터 약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삼양그룹이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 대여한 셔틀버스는 연평균 450대 이상이다.

지원한 차량과 인력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인력지원 약 13억원, 차량지원 약 7억원으로 총 20억원에 달한다.

/김성현 기자

"편의점에서 추석 준비하세요"

선물세트·도시락 등 출시

편의점 업계도 추석 선물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집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면 손쉽게 추석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나홀로 족'을 위한 도시락도 출시됐다.

GS25(대표 허승조)는 추석 선물 582종을 선보이고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400여 종의 상품을 2+1, 3+1, 5+1 과 같은 +1 상품으로 구성했다. 한개를 덤으로 준다.

이달 30일 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팝카드로 결제하면 GS&POINT 25%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CU(대표 박재구)는 명절을 홀로 보내는 '나홀로 족'을 위한 '풍성한 시리즈 3종'을 출시해 내달 3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풍성한 나물비빔밥', '풍성한 매콤찜닭 주먹밥', '풍성한 제육볶음 주먹밥'등 3종을 선보인다.

풍성한 나물비빔밥은 곤드레밥, 애호박, 당근, 콩나물 등 6가지 나물과 불고기로 구성됐다. 가격은 3800원이다. 풍성한 매콤찜닭 주먹밥과 풍성한 제육볶음 주먹밥은 곤드레밥 사이에 각각 찜닭과 제육볶음을 넣어 만든 주먹밥이다. 가격은 1300원이다.

/김성현 기자



추석맞이 인기 대형가전 세일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추석을 맞아 삼성전자 LG전자 대형가전 중에서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찾은 대형가전을 이달 30일까지 전국 140개 매장에서 특가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리미엄 냉장고와 드럼, 전자동 세탁기를 최대 15%, 40인치 이상 프리미엄 TV를 10~20%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리아, SCG그룹과 라오스 진출 협약

현지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라오스 현지 기업인 SCG그룹과 라오스 진출 프랜차이즈 협약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리아와 SCG그룹은 현지 사업 노하우와 롯데리아의 프랜차이즈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20여 개의 점포를 오픈한다는 목표다.

롯데리아의 파트너사인 SCG그룹은 2005년 설립된 유통, 건설 전문 기업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라오스는 연평균 7.7%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식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라오스에는 경쟁사인 글로벌 외식 브랜드가 없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6년 1분기에 1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롯데리아는 현재 해외 6개국에서 총 27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212개 점, 인도네시아 34개 점, 중국 18개 점, 미얀마 8개 점, 캄보디아 3개 점, 카자흐스탄 2개 점 등을 운영중이다.

aT, 국내 최대규모 요리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대회인 '2015 코리아푸드 트렌드페어&케이 푸드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요리대회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조리학과 학생 및 셰프, 관련 업계와 기관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코리아 푸드 챌린지 고멧 컴피티션·우리 산채를 활용한 창작 요리경연대회·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빵·제과 대회 등 10여 개 종목에서 경연을 벌인다. 또 전시장 내부에 마련된 컨퍼런스룸에서는 유명 셰프의 강의 등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담백한 액상 조미료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액상 조미료인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을 18일 출시했다.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은 닭고기를 파, 마늘과 함께 우려내 담백하고 깔끔한 감칠맛을 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수입산 고체형 치킨스톡과 달리 액상이라 물에 갤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의 용량은 300g이며 가격은 할인점 기준으로 5980원이다.

톡톡 터지는 초코팝핑볼 '비요뜨 슈팅스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초코팝핑볼을 요구르트와 섞어 먹는 '비요뜨 슈팅스타'를 출시했다.

비요뜨 슈팅스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004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섞어 먹는 토핑 요구르트의 라인업 제품이다.

코웨이, 외국자본에 팔리나

3조원대 몸값에 국내 기업들은 손사래
자금력 갖춘 중국계 회사·필립스 '군침'

하반기 인수합병(M&A) 대어로 꼽히는 코웨이가 외국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조 원에 이르는 몸값에 국내 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는 반면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코웨이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인 필립스가 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계 회사가 코웨이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중국에서 외국산 공기청정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자의 공기청정기를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통 가전업체뿐 아니라 샤오미 등 IT 업체까지 공기청정기를 출시했지만 외국 공기청정기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1%(201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외국산 공기청정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런 이유로 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가전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중외합작전자회사인 캉자그룹과 중국 가전회사인 TCL은 지난 2013년 코웨이가 매각전에서 적격예비후보에 포함돼 본입찰까지 참가한 바 있으며, 이번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 제공

필립스 역시 코웨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 코웨이는 2010년 필립스와 공기 청정기 공동개발·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중국시장 판매 1위에 올랐다.

필립스가 만약 코웨이를 인수한다면 공기청정기 외에도 정수기와 비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추가로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최근 필립스는 골드만삭스가 보낸 투자안내서 외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3조 원에 이르는 코웨이의 매각가격이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2013년 웅진코웨이를 사들였을 당시 낸 1조1915억 원의 2배가 넘는다.

당초 SK네트웍스를 비롯해 인수후보로 꼽혔던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 한국타이어, 교원 등은 한껏 높아진 몸값에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웨이가 MBK에 매각된 2012년에 비해 매각가격이 2~3배 오른 상황에서 국내 중소·중견 생활가전 업체들은 사실상 인수전 참여가 어렵고 대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낄 정도 금액이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코웨이의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0일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사모펀드(PEF), 중국과 유럽 기업 등 잠재적인 투자자 총 30여 곳에 투자안내서(티저 레터)를 보냈다. 매각 대상은 코웨이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0.9% 전량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휠라, 아웃도어 사업 철수한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아웃도어 시장 부진
'골프·키즈' 등 집중



휠라코리아(회장 윤윤수·사진)가 아웃도어 사업을 철수한다.

20일 휠라에 따르면 최근 윤윤수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고 아웃도어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휠라의 국내 사업 매출은 3974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아웃도어매출은 전체의 6% 정도인 238억원 규모다.

휠라는 시장 진출 5년째인 현재까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아웃도어 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점을 사업 철수의 이유로 꼽았다.

최근 몇 년 새 30~40%씩 급성장해왔던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성장률은 2011년 34%를 기록하는 등 매년 두자릿수대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9%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휠라는 스포츠와 키즈, 골프 등에 사 업역량을 집중하고 2020년까지 국내 매출 8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홈플러스 노조 "추석 전 총파업 돌입하겠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노동조합이 20일 MBK파트너스를 향해 추석 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앞서 홈플러스의 인수사로 확정된 MBK파트너스를 향해 고용안정,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직접 대화를 요구했지만 MBK 측은 주주일 뿐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MBK 사옥 앞에서 순차적으로 농성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MBK 측이 회신을 하지 않자 추석 전에 1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우리 조합은 실질적인 교섭의 진전을 위해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섭체계와 임금교섭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 노사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의 입장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추석 전 1차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

송도서 취하는 '옥토버페스트'

쉐라톤 인천 호텔

내달 4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2만3000원 추가 무한 생맥주



/쉐라톤 인천 호텔 제공

인천 송도 국제 도시의 유일한 특 1급 호텔인 쉐라톤 인천 호텔이 '옥토버페스트@피스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옥토버페스트@피스트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호텔의 로비바 비플랫(Bb)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 독일 밀맥주를 닭고기 슈니츨, 맥주와 꿀을 곁들인 돼지 갈비살, 다양한 수제 소시지 등과 함께 즐기는 맥주 페스티벌이다. 시원한 크래프트 맥주와 다양한 병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뮌헨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맥주 축제다. 매년 9월 15일 이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16~18일간 계속된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독일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맞춰 독일의 맥주 축제 열기를 국내 호텔에서 즐길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옥토버페스트@피스트 프로모션은 주중 점심은 5만2000원, 저녁은 6만2000원, 휴일과 공휴일 점심은 6만2000원, 저녁은 6만9000원에 제공된다. 또한 2만3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단 16일 동안 즐길 수 있는 이번 독일 맥주 축제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심혈관질환 예방 탁월… 견과로 건강 선물

수다

소비자 맞춤 세트구성 인기



견과바 추석선물세트. /수다 제공

고민되는 명절선물세트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는 견과류 선물세트는 어떨까?

다양한 건강식품 중에서도 견과류는 암예방은 심뇌혈관계질환 예방효과, 단백질, 칼슘, 아연,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성분를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이다. 전문가들도 꾸준히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제 견과류바가 인기를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취향이나 입맛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다 관계자는 "수제 견과류바는 평소 견과류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선물세트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수다에서 판매하는 명절선물세트의 판매 금액은 20개 구성 기준 3만원 선이다.

견과류 전문브랜드 수다의 선물세트 제품구성이나 자세한 가격대는 블로그(http://blo.naver.com/suda_health)를 참고하거나 매장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02)-6922-2005/010-7384-8464.

/정은미 기자 21cindiun@

中 연태 명문클럽 2박3일 라운딩 '85만원'

아이엘투어

2015 가을겨울시즌 겨냥 동남아 등 해외상품 출시



아이엘투어 '그린우드'.

골프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는 2015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해 국내골프여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골프특가 상품을 출시했다.

매년 가을 성수기 마다 주목되는 지역인 중국의 연태는 인천공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한국인 골퍼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이다.

'아이엘투어'에서는 이러한 중국 연태에 위치한 명문 골프 클럽인 군정CC 2박3일 85만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의 동남아 지역에서 무제한 라운딩을 하고 싶다면 마닐라 푸에르토아즐 골프장 3박 5일 상품이 제격이다. 이 상품은 왕복항공료(제주항공 또는 필리핀항공), 숙박(2인1실), 식사(조·중·석), 무제한 그린피를 포함한 금액이 45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클락 뉴아시아 3박 5일 59만원, 세부 퀸스아일랜드 3박5일 79만원, 메르세데스 3박 5일 69만원, 방콕 2색골프 79만원, 파타야 3색골프 89만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퇴후 여유로운 골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장기골프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몬테레즈 10박 12일 159만원 상품을 추천한다.

그밖에도 색다른 골프 상품은 홈페이지(www.ilgolf.co.kr)나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golfcondo), 전화(02-542-424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인체공학 디자인 적용… 발 관절 지킴이

쥬비니스 골프 슈즈

이중구조 충격흡수 신소재



해원골프의 수제 골프화 '쥬비니스 골프 슈즈'.

(주)해원골프에서 수제 골프화 '쥬비니스 골프 슈즈'를 선보였다.

쥬비니스 골프 슈즈는 혁신적인 아웃 스트리트 디자인과 편안함, 편리성을 제공한다.

발등, 갑피 부분은 프리미엄 가죽의 장점인 통기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내구성을 강화시켰다. 내피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가죽을 사용해 시원하고 쾌적한 신발 내부 환경을 제공한다.

다이얼 레이싱 시스템은 플레이 시 빠르고 쉽게 신발 착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신발끈의 조임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해 피팅감을 극대화하고 신발끈의 엉킴과 풀림을 방지하도록 했다.

초경량 파일론 미드솔 재질을 적용해 발의 피로감도 최소화했다. 우수한 충격흡수성과 탄성, 내구성과 유연성을 자랑한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골퍼를 지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유도, 파워와 안정성도 증대시킨다. 이중구조의 충격 흡수 인솔은 발 바닥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편안한 신소재(Poliyou)로 발 전체의 충격을 흡수해 발의 관절을 보호한다. 문의 070-5001-0799

/이예진 기자 green@

이대목동병원

로제타 여사 후손 초청 韓 의료선교사역 특강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증손자 클리포드 킹(사진 가운데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그의 6촌 라인위버 메시나(사진 가운데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로제타 셔우드홀 의료선교사의 선교사역' 특강 후 기념 촬영을 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김점동)를 키워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후손이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했다.

43년 동안 의료 선교를 펼친 로제타 여사는 한국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화의료선교회(회장:홍기숙)의 초청으로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한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후손은 유일한 증손자인 클리포드 킹과 그의 6촌 라인위버 메시나이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을 찾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평전 '닥터 로제타 홀'을 쓴 박정희 작가의 '로제타 셔우드 홀 의료 선교사의 선교사역' 특강을 듣고 이후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병원 등을 둘러봤다.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멀리 이국에서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로제타 여사 후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먼 이국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녀의 삶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디펜스벅스로 '쯔쯔가무시증' 차단

동국제약

진드기 예방 안내책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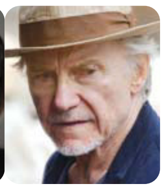
동국제약 진드기 예방 안내책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인파가 늘어나면서 진드기로 인한 치명적인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 담당자는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피제로 공식 허가 받은 디펜스벅스와 디펜스벅스더블을 출시하고 있다"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로 인한 치명적인질환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안내' 책자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디펜스벅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천하고 EPA(미국 환경보호청)로부터 승인 받은 진드기·모기 기피제로, 피부 내 침투성이 낮아 유·소아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부산 찾는 월드스타

프랑스 대표 여배우 **소피 마르소**와 할리우드 명배우 **하비 케이틀**이 내달 1일 개막하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다. 소피 마르소는 '제일버드'의 주연 배우로, 하비 케이틀은 '유스'로 첫 내한한다.

'검은 사제들' 개봉 확정



김윤석, 강동원이 주연을 맡은 영화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이 오는 11월 5일 개봉을 확정했다.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맞서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中 영화제 여우주연상



배우 **김새론**이 지난 18일 열린 제24회 중국 금계백화장 시상식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눈길'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앞서 배두나·손예진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작품은 최우수작품상도 받았다.

전국 투어 콘서트



가수 **윤종신**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다음달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울산·서울·대전·부산·수원·대구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능인이 아닌 뮤지션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게릴라 이벤트 개최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게릴라 이벤트 '종현의 힐링 스토리'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깜짝 이벤트였음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웃음'

'더 지니어스' 장동민

의사 등 고스펙자 물리치고 우승 개그맨 선입견 전환 계기 됐으면

언행 논란… 겸손해지는 계기 돼 안정적인 코미디 환경 위해 노력



개그맨 장동민(37)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정반대인 사람이다. 그는 최근 종영한 '더 지니어스'에서 변호사, 의사, 정치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의 고스펙을 가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소문난 영재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히려 시즌 내내 그들을 이끌고 뛰어난 리더십과 게임 지배력을 보여줬다. 그가 평소 방송에서 보인 개그맨으로서의 모습과 정반대의 것이다.

"제작진이 처음 저를 섭외했을 때 우승해달라는 반응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장동민 개인이 아닌, 저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요.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죠. 단순히 스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회에도 의식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더 지니어스'의 우승으로 날개를 펼친 장동민은 얼마 전까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시 '무한도전'의 유력한 6번째 멤버로 물망에 올랐던 장동민은 방송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까지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행에 신중하게 됐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게 됐죠. 나로 인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배우고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실제 모습과 방송 속 모습이 다른 부분은 성격 말고 다른 곳에도 있다.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다. 동료 개그맨 홍인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돈이 없어 힘들어하자 장동민이 돈을 몰래 놓고 갔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후배 개그맨 김영민은 SNS를 통해 군입대를 앞둔 자신의 휴가 비용을 챙겨주기 위해 장동민이 방송 출연 분량을 챙겨줬다고 밝혔다. 지금은 후배 개그맨을 위해 무이자 대출도 지원해주고 있다.

"사실 후배 개그맨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노력에 비해 대가가 터무니 없죠. 환경이 안정돼야 좋은 코미디가 나올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 빅리그' 첫회부터 지금까지의 출연료를 동결시켰어요. 저한테 줄 돈으로 한 명이라도 더 써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회사와 협의했거든요."

장동민은 누구보다 코미디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우승 소감에 담겼다. 그는 개그맨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이면에는 웃음이 가진 힘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

"개그맨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는 건가 싶었어요. 개그맨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놓고 싶었죠. 모든 편견과 잣대를 버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웃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뒤처진 사람을 웃게해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하도록 더 노력할 겁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도' 개봉 첫 주말 131만 돌파

'베테랑'·'암살'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 등극

영화 '사도'(감독 이준익)가 개봉과 동시에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도'는 개봉 첫 토요일인 19일 하루 동안 54만3073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31만3200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개봉 첫 주에 2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난 16일 개봉한 '사도'는 개봉 첫 날 25만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17일과 18일에도 20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속도를 냈다. 추석 연휴를 한 주 남겨두고 박스오피스를 선점한 만큼 연휴 동안의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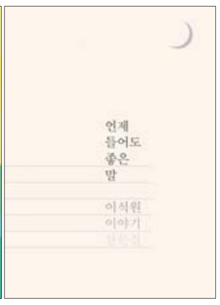
2위는 지난 17일 개봉한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이 차지했다. 19일 토요일 동원 관객수는 35만8141명이다. 누적 관객수는 77만1673명을 기록하고 있다. '앤트맨'은 3위로 뒤를 이었다. 누적 관객수는 263만1978명이다.

한편 '베테랑'은 19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272만8091명을 기록해 '암살'(19일 기준 1267만5407명)을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다. 역대 박스오피스에서는 '7번방의 선물'(1281만1206명)의 뒤를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새로 나온 책

언젠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달/임수진 지음
그책/이석원 지음

서정적인 감수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인디 뮤지션의 에세이집이 동시에 출간됐다.

'언젠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은 브로콜리 너마저 출신이자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 중인 임수진의 첫 에세이집이다. 계피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번 에세이집에서 처음으로 본명을 내걸고 음악으로 담지 못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64쪽. 1만3500원.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이 낸 두 번째 산문집이다. 2009년 출간한 첫 산문집 '보통의 존재'는 젊은이들의 불안을 따뜻하게 보듬는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306쪽. 1만3000원.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샘터/고코로야 진노스케 지음·예유진 번역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의 저자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2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성격 리폼 전문 심리카운슬러'로 전직한 이색 경력을 지닌 작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너무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꿈꾸는 책들의 미로



문학동네/발터 뫼어스 지음·전은경 옮김

'꿈꾸는 책들의 미로'는 발터 뫼어스의 판타지 '차모니아 시리즈' 여섯 번째 소설이다. 폭발적인 상상력으로 빚어낸 이야기 안에는 특유의 유머와 천재적인 비유가 살아 숨 쉰다. 재치 있는 언어유희로 고전작가들을 비틀어 인용하며 거침없는 입담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시 읽는 밤: 시 밤



예담/하상욱 지음

2013년 '서울 시'로 SNS 시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하상욱 작가의 새로운 시집이다. '시 읽는 밤: 시 밤'에서는 재치 넘치면서도 조금은 진지한 모습을 담았다. 하상욱 시인만이 쓸 수 있는 144편의 사랑시와 함께 감성 가득한 사진, 캘리그라피를 함께 실었다.

우리 집의 세계화



문학과지성사/차인석 지음·진형준 옮김

'우리 집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 개별 국가만이 아닌 전 지주적 차원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한 윤리를 제시한다. 이 책은 학술 저널 '디오게네스'를 비롯해 저자의 논문 중 동일 주제의 여섯 편을 선별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저자의 오랜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이다.

시를 쓴다는 것



교유서가
다니카와 슌타로 지음·조영렬 옮김

'시를 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의 에세이다. 60년 넘게 시를 써온 시인의 시론(詩論)이자 노년의 회고담이기도 한 책이다. NHK 위성방송 채널에서 2010년 방영된 프로그램 '100년 인터뷰,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를 바탕으로 했다.

상(차리는)남자? 상남자!



메디치미디어
조영학·유정훈·강성민·이충노·황석희 지음

'상(차리는)남자? 상남자!'는 음식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다섯 남자가 의기투합해 쓴 책이다. 이들은 "음식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한 끼의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요리만큼 입담 좋은 밥상 철학부터 음식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유쾌한 밥상 수다가 가득 담겼다.

TV 하이라이트

생애 첫 셀프 인테리어 도전기

◆ MBC '다큐스페셜'
오후 11시15분



가수 강남의 집을 단돈 97만원에 변신시킨 화제의 인물 제이쓴과 함께 생애 첫 셀프 인테리어 도전에 나선 이들을 만나본다. 22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잔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세 식구와 함께 추억이 담긴 집을 완성한다. 결혼 7년차 김선아 부부는 그동안 불어난 살림살이를 일주일에 걸쳐 정리한 뒤 새롭게 집안을 채워낸다. 생애 첫 자취방을 얻은 이상진은 싱글 하우스를 환골탈태 시킨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동네오빠 하석진이 총각 티가 묻어나는 냉장고를 공개한다. 절친인 김풍과 박준우는 '술을 부르는 깊은 맛의 국물 요리'를 주제로 하석진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 대결을 펼친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새로운 1승에 도전하는 고민의 주인공들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삼남매보다 더 철없는 남편을 키우느라 고민인 결혼 7년차 주부는 남편을 혼내달라며 MC들에게 하소연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0시50분

'엄친아' 래퍼 빈지노가 게스트로 출연해 각국의 대학 진학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막간을 이용해 G12은 빈지노의 심사 아래 자존심을 건 힙합 대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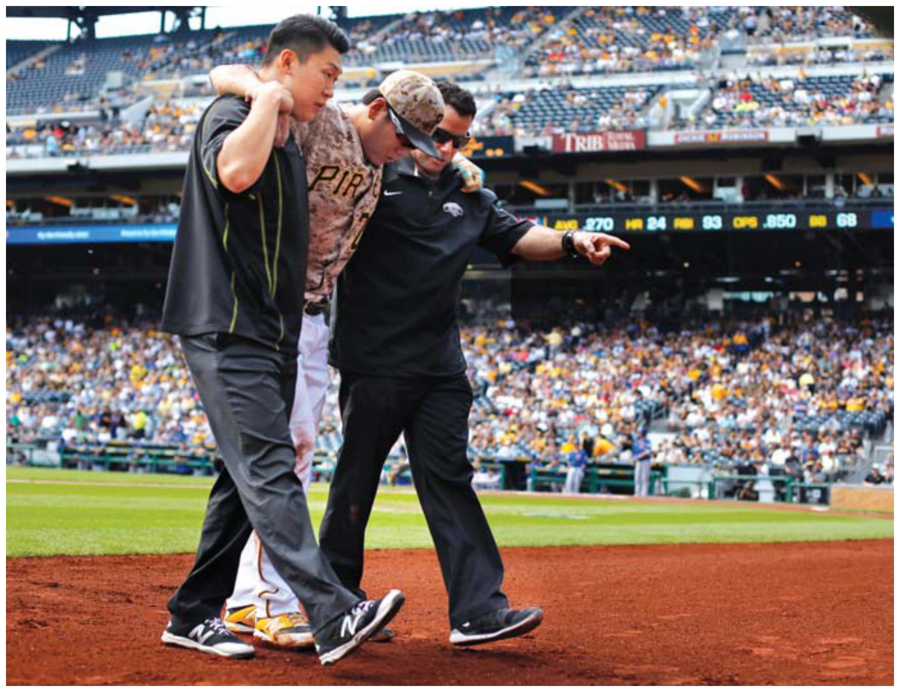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일(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다 잘될 거야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닥터의 승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35 디데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5:40 집밥 백선생 오늘 뭐 먹쥬? (재) 06:00 명단공개 (재)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2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두번째 스무살 (재)	05:00 더 프렌즈 in 돗토리 06:0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06:55 식신로드 07:50 수수께끼의 전학생 09:00 일요다큐 산 09:30 여행의 발견 10:00 Wonderful 일본 여행 10:25 유성왜건-더빙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3:1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두번째 스무살 (재) 14:30 문제적 남자 (재) 15:50 코미디 빅리그 (재) 17:10 두번째 스무살 (재)	12:05 수수께끼의 전학생 12:40 하나사키 마이가 잠자코 있지 않아 S1 13:4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14:35 해피라이프 15:40 Wonderful 일본 여행 16:25 일요다큐 산 17:05 여행의 발견 17:35 유성왜건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별난 며느리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0 MBC 다큐스페셜 24:10 MBC 뉴스 24 24: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45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미세스캅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비정상회담 대표들이 뽑은 히든 싱어 시즌3 베스트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마녀사냥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1:50 남심북심 한솥밥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8:20 두번째 스무살 (재)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명단공개	19:20 하나사키 마이가 잠자코 있지 않아 S1 20:25 진짜사랑 시즌1 21:00 여성 룰 22:15 하나사키 마이가 잠자코 있지 않아 S1 23:15 위자료 변호사 24:05 우로보로스

류현진 이어 강정호까지… 빅리거 덮친 부상

코글란 공격적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 부상
재활 6~8개월 필요… "운 나빠 부상한 것"



지난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1회초 수비 도중 컵스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슬라이딩으로 부상했다. 이날 부상으로 강정호는 올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하게 됐다. /AP 연합뉴스

올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첫 진출해 맹활약하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하게 됐다.

강정호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했다.

1회초 수비 때 강정호는 병살 플레이를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쳤다. 컵스의 1루 주자 크리스 코글란이 강정호가 공을 1루에 던질 수 없도록 2루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한 것이다. 강정호는 왼쪽 무릎 부상과 정강이뼈 골절로 올 시즌을 접게 됐다. 수술을 받은 뒤 6~8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병살타를 막기 위해 베이스가 아닌 야수를 향해 다리를 드는 슬라이딩을 당연한 플레이로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호의 부상 이후 현지 언론은 공격적인 슬라이딩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CBS스포츠는 "주자의 거친 슬라이딩은 위험하고 솔직히 말해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거친 슬라이딩이 그라운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강정호의 부상을 계기로 주자들의 공격적인 슬라이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코글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며 코글란을 감쌌다. 그는 에이전트인 앨런 네로를 통해 "운이 나빠 부상을 당했을 뿐"이라며 "(코글란이)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걱정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글란은 "나는 명백하게 룰 안에서 슬라이딩을 했다"며 "그가 내 위로 점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고약했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피츠버그 클럽하우스를 통해 강정호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에 앞서 류현진(28·LA 다저스)도 지난 5월 왼쪽 어깨 통증으로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올랐다. 강정호가 부상을 당한 다음날인 19일에는 피츠버그와 다저스의 경기가 열렸다. 기대됐던 한국인 타자의 맞대결은 두 선수의 안타까운 부상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는 다저스가 6-2로 승리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추신수, 4경기 연속 멀티 히트

5번 출루 쾌조의 활약
텍사스, 시애틀에 설욕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3타수 2안타(1득점)를 치고 두 차례는 볼넷, 한 차례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한 경기에서 5차례 이상 출루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이날 2안타로 추신수는 1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부터 4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했다.

출루는 지난 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 이래 18경기째 계속됐다. 시즌 타율은 이날 0.273으로 올랐다.

텍사스는 시애틀에 10-1로 이겨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도 굳건히 지켰다. 지구 2위 휴스턴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10-6으로 이겨 2.5경기 차를 유지했다.

/장병호 기자

기성용, 후반 32분 활약에도… 에버턴과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완지시티는 20일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5-2016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과 0-0으로 비겼다.

기성용(사진)은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활약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16분 카일 노턴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바페팀비 고미스가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시저스킥 슈팅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공은 골키퍼 팀 하워드의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17분에는 헤페르손 몬테로가 골지역 왼쪽으로 드리블해 들어간 뒤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또다시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기성용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후반 48분 기성용은 골지역 오른쪽으로 달려 나가며 동료의 침투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연결하려 했으나 공은 이를 간파하고 뛰쳐나온 하워드의 품에 안겼다. 이어 1분 뒤에는 골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 위로 벗어났다.

/장병호 기자

박성현, KLPGA 시즌 2승

상금 5억원 쌓아 랭킹 5위 등극

박성현(22·넵스·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성현은 20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파72·6450야드)에서 열린 KDB대우증권 클래식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연이은 장타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골라내 3타를 줄였다.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김혜윤(26·비씨카드) 등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메이저대회 한국여자오픈 우승 이후 3개월 만의 우승이다.

우승 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박성현은 시즌 상금 5억원을 쌓아 랭킹 5위 안에 진입했다.

박성현은 같은 챔피언조에서 경기한 상금 1위 전인지(21·하이트진로)의 시즌 5승을 저지하고 남은 6개 대회에서 상금 레이스 역전 가능성을 높였다. 전인지는 퍼트 난조에 빠지면서 3타를 잃어 공동 11위(7언더파 209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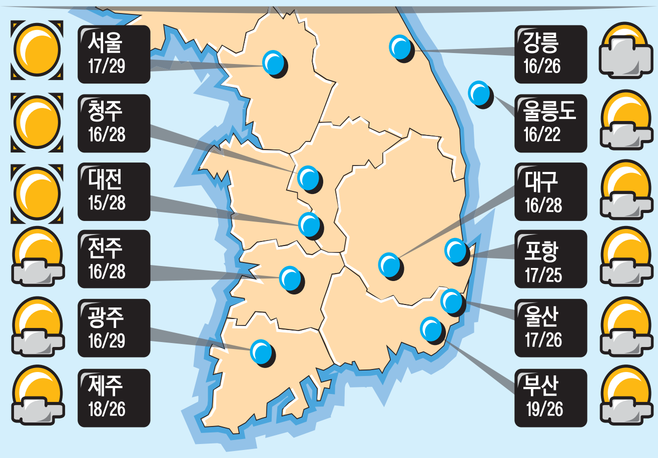
/장병호 기자



날씨

9/21 월 일출시각 06:18 일몰시각 18: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5		2		8		
1			4		3			9
			1	7				
	6				8	1		
4		2				3		5
		3	2				9	
				9	1			
5			6		2			8
		8		4		9	6	

	9	8				6		
			7				3	8
6			2					
8	3					9	4	
9	1		4		8		7	3
	4	6					8	5
					2			1
7	6				5			
		9				8	5	

스도쿠 정답

3	7	5	9	2	6	8	1	4
1	2	6	4	8	3	7	5	9
9	8	4	1	7	5	2	3	6
7	6	9	3	5	8	1	4	2
4	1	2	7	6	9	3	8	5
8	5	3	2	1	4	6	9	7
6	4	7	8	9	1	5	2	3
5	9	1	6	3	2	4	7	8
2	3	8	5	4	7	9	6	1

4	9	8	1	5	3	6	2	7
1	5	2	7	9	6	4	3	8
6	7	3	2	8	4	5	1	9
8	3	7	5	2	1	9	4	6
9	1	5	4	6	8	2	7	3
2	4	6	3	7	9	1	8	5
5	8	4	9	3	2	7	6	1
7	6	1	8	4	5	3	9	2
3	2	9	6	1	7	8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went a little too far…

A: Wanna grab a bite? I'm down the street from your place.
B: No. I'm never leaving this house again!
A: Lol why's that?
B: My hair. It's a disaster. I just got the worst haircut of my life.
A: They cut it a little too short? I'm sure it's not that bad.
B: It's waaaay too short. And blonde. :X
A: Blonde? You dyed it too?
B: I was watching some American movie and the main character was so cute so I tried to copy her style.
I went a little too far…
A: There's not a thing you could do to make yourself look bad. How about throwing on a hat and meeting me?
B: You buying?
A: Yeah. You coming?
B: Sure, why not? XD

나 좀 오버했어…

A: 뭐 좀 먹을래? 너네 집 근처 길가에 있는데.
B: 싫어. 다신 집 밖에 안 나갈 거야.
A: ㅋㅋㅋ 왜 그런데?
B: 내 머리. 완전 망했어. 내 인생 최악의 머리라고.
A: 좀 너무 짧게 자른 거야? 그렇게 심하기야 하려고.
B: 너어어어~무 짧아. 글구 금발.
A: 금발? 염색도 했어?
B: 미국 영화 보다가 주연이 넘 예쁘길래 그 여자처럼 하려고 했지.
좀 오버해 버렸어…
A: 넌 어떻게 해도 흉해 보일 리가 없어. 모자로 대충 가리고 만나는 게 어때?
B: 니가 살 거야?
A: 그럼. 올 거야?
B: 당근, 왜 안 가냐?

* Lol : 웃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속어로 laugh out loud의 약어
* You coming?: Are you coming?을 줄인 표현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해도 될까요?
아끼고 위하는 궁합… 믿고 배려하세요

로얄 남자 79년 3월 21일 양력 8시
여자 83년 7월 20일 양력 14시경

Q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결혼에 적극적이지 못한 저에게 여자 한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첫날 상대 여성도 별로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썩 마음에 내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천생 배필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까 합니다. 여러 번 선을 보아왔고 연애를 해 봤지만 오늘날까지 성사 된 것은 없었습니다.

남자인 저는 1979년생 여자 분은 1983년생 입니다. 천생배필이 그리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기대 할 것이 안 되겠지만 이참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결혼을 해도 되는지 도와주세요.

A 두 분의 궁합은 물이 나무를 생하듯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지나친 사랑의 독점욕인 귀문의 기운이 상존하여 의처증을 보이므로 차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성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결혼을 해도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원만히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필자가 단언하는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심상(心象)입니다.

아무리 운이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본인의 허물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설사 그 사람이 비운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은 단축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될 때 내게 복이 되며 어려울 때 심상이 굳건히 마음자리를 잡으니 재물손실이나 불운은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장점으로 귀하의 사주에는 일귀(日貴)라고 하여 생일지(生日支:태어난 날)에 천을귀인(天乙貴人)의 상을 두고 있어서 사람 됨됨이가 순수하고 덕이 있습니다. 복록이 두터워 어려움을 당할 때 의외로 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명(吉命)입니다.

여자 분도 '가을걷이 들판에 닭'으로 먹을 것이 많은 때 이곳을 뛰어 다니는 닭과 같으니 분주하고 식록이 풍부합니다.

한편 '철근으로 잘 짜인 건물과 같은 형상'으로 기억력이 뛰어나고 비상한 두뇌를 지녔는데 기토(己土:밭에 흙)의 모성을 지녀 성품이 후덕한 가운데 유금(酉金)이 작용하여 내면에 냉철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생일지에 장생(長生)을 두고 있어 재물을 모으는 기운도 강합니다. 여자의 내조가 잘 되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니 애초에 언급한 의심하는 기운이 드러날 때가오면 다시 상담 신청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1일 (음 8월 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즐거움이 다시 귀하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60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이성간에 사랑싸움이니 이해와 양보를 하세요. **84년생** 구설수만 조심하면 괜찮은 하루입니다.

소 — **49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61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73년생** 부부나 이성간에 애정운이 좋습니다. **85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호랑이 — **50년생**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됩니다. **62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74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토끼 — **5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아주 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릅니다. **87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용 — **52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64년생** 자녀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76년생**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 일에 꾸려 나아가세요. **88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뱀 — **53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 할 수가 보입니다. **77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89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말 — **54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66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78년생** 베푸세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0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양 — **55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을 하세요. **79년생** 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합니다.

원숭이 — **56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68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80년생**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92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닭 — **57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습니다. **69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됩니다. **81년생**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3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개 — **58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0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82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4년생** 실물수가 보입니다.

돼지 — **59년생** 춘삼월이 지나서 꽃을 탐하면 이롭지 않습니다. **71년생** 보증은 절대 안됩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의 천거를 받으니 공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가인과 화합합니다.

영화제는 정치쇼가 아니다



양경미의 문화톡

지난해 부산시장의 '다이빙벨' 논란 이후 영화제가 열리는 지자체라면 어김 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지자체장들은 공개적으로 부산시장의 행태를 비판하고 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름을 강조한다. 정치적 간섭을 피해 전문성을 고려한 영화계 인사로 조직을 꾸리겠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정치색과 이해관계가 맞는 영화인을 선택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지난 17일 열린 제7회 DMZ(비무장지대)국제다큐영화제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개막식에서 조직위원장인 경기도지사가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 사회를 맡았다. 다른 영화제와 달리 유명배우가 아닌 도지사가 예산 절감을 위해 사회를 봤다는 것부터가 정치색이 짙다. 영화제 개막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대조를 이루며 화제가 됐지만 개막식 사회로 빛이 바래는 느낌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영화를 이용한다. 어떠한 선택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하고 결정한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처럼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도지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번 DMZ영화제에서는 '다이빙벨'보다 표현 수위가 높다는 세월호 다큐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된다. 노동자들의 투쟁, 분단 70년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문제적 다큐 영화도 다수 상영하기로 했다.

정치인들의 영화제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영화가 지닌 대중적 영향력 때문에 정치인들은 영화를 순수예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화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부분을 담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주류영화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면 비제도권 독립-다큐멘터리 영화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막대한 대중적 영향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화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영화제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나라 영상문화 및 영화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영화제는 영화산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영화산업이 지나치게 정치성을 띠면서 발전하지 못한 역사가 입증한다. 영화의 문화적 가치가 퇴색해 다양성과 흥행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제가 정치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 소장

社說

신동빈 회장의 '용기' 본받아야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섰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출석은 발언 내용보다는 출석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재벌총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5공비리청문회 이후 10대그룹 총수 가운데는 처음일 것이다. 실로 국민들은 이 순간을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다. 그러므로 신회장의 국회 출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아울러 신 회장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이제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재벌 총수의 출석 여부이다. 이들에게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물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MERS사태에 관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는 묻고 총수는 답변해야 한다. 이들 총수를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된다. 앞으로 다른 재벌의 경우 어떻게 할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재벌총수가 국회 증언석에 서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출석 자체가 초점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이제 그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도 재벌총수도 신동빈 회장의 '용기'를 본받기 바란다.

단통법에 골머리 앓는 영세 판매점, 상생구조 조성해야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다음 달 1일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단통법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오갔다.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으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며 법안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영세 대리점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정반대다. 그들은 시장이 마비됐다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단통법 이후 판매가 30% 이상 준 것 같다. 이동통신사가 33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공개하고, 유통점이 이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테크노마트 같은 상가와 차이가 사라져 손님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충은 이해할 만 하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늘리면서 영세 판매점은 골목상권을 빼앗겨 경영난을 겪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는 시장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전체 유통점이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은 1130만여대로 전년보다 110만대 감소됐다. 번호이동도 4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트렌드가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옮겨간 동시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가입자 수 자체가 줄어 유통점에서 체감하는 불경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반면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겐 약이 됐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이 설정돼 무분별한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게 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통신사, 유통점 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단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영세 판매점도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길 바란다.

벌초 갈퀴질에 허리는 '으악'

생활건강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벌초를 하는 시기다. 여름철 쑥쑥 자라난 잡초와 풀을 베는 일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작업이다. 무거운 벌초 장비를 들고 산에 오르고, 예초기를 지고 벌초를 하면 어깨 허리 무릎 등에 크고 작은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벌초 부상이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은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산에 오를 때는 장화보다는 등산화가 낫고 본격적인 벌초 작업 전에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예초기를 다루는 사람은 안전덮개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낫과 갈퀴를 쓰는 사람은 허리 부담이 특히 심하므로 20분 간격으로 쉬면서 작업해야 한다.

벌초는 더운 날씨에 산에 올라 풀을 베는 고된 작업이다. 벌초할 봉분은 보통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산 중턱에 위치해 등산처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또한 봉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허리 어깨 목 등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다. 여기에 연료를 넣어 10kg이 넘은 예초기를 메고 풀을 깎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벌초 뒤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벌초 시 가장 무리가 가는 곳은 허리다. 특히 허리디스크가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산에 오를 때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디스크를 압박,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낫이나 갈퀴로 풀을 베고 모으는 작업도 계속 허리를 숙이고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악화시킨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부실한 사람도 경사가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이 부담스럽다. 잡초를 뽑을 때 쪼그려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의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한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발목이나 손목, 꼬리뼈 등을 다칠 수도 있다.

벌초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벌초 복장은 일하기 편하면서도 산을 탈 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산에 오를 때는 긴소매 긴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는다. 벌초할 때는 목이 긴 장화를 신는 경우가 많은데 산에 오를 때는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를 신고 벌초하기 직전에 장화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

강북 힘찬병원 백경일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를 숙인 채 뒤를 돌아보는 등의 자세는 척추뼈를 뒤틀어지게 해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매우 해로운 자세다"고 설명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인 사

◇공정거래위원회△과장 직위승진▷기업집단과장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이동원
◇국세청△서장급 전보▷본청 상속증여세과장 박해영 ▷본청 소득관리과장 이기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한종 △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반재훈
◇대전시 유성구△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심소명 ▷사회복지국장 신찬균 ▷의회사무국장 신동천 ▷평생학습원장 이돈구
◇전북 전주시△5급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덕진구청 엄익준 ▷체육진흥과 이은현 ▷신성장산업본부 김인정
◇천안시△5급 전보▷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주재석 ▷" 자치민원과장 이남동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
◇전국은행연합회△부서장 전보 ▷기획조사부장 박창옥 ▷자금시장부장 김혜경 ▷은행경영지원부장 김태훈 ▷총무부장 김평섭 ▷홍보실장 이경희 ▷감사실장 손경애 ▷민원상담실장 조봉규△차석부장·팀장 전보 ▷기획조사부 기획팀장 박영상 ▷수신제도부 차석부장 박진향 ▷자금시장부 차석부장 이상헌 ▷은행경영지원부 은행경영지원팀장 김수연 ▷신용정보부 신용정보관리팀장 조만식

부 고

▲김병엽 씨 별세, 박태성(마니아리포트 사진기자)씨 빙모상= 19일, 여수제일병원 1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061-692-4444
▲김진달 씨 별세, 길수(화천군 부군수)씨 부친상 = 18일 오후 9시 45분,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이옥인 씨 별세, 문관식(LG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영미(주부)·현식(개인사업)씨 모친상, 최명관(한국신문협회 사원)씨 빙모상 = 20일 오전 2시,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이충걸 씨 별세, 춘봉(경상일보 종합편집팀 기자)씨 부친상 = 19일 오후, 울산 중앙병원 장례식장 로얄실, 발인 21일 오전 9시
▲최종모 씨 별세, 최봉규(비자테크㈜ 대표)씨 부친상, 이영란(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씨 시부상 = 20일 오전 5시10분, 충남 홍성군 장곡농협홍주장례식장 무궁화실, 발인 22일 오전 8시. ☎ 041-634-1824

기사제보=02)721-9832



ROYAL PALACE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요즘 뜨는 실속형 아파텔 분양
아파트 보다 좋다!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만족!
투자는 200%만족!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한국경제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영등포 청과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역 (지하철5호선)
모델하우스
영등포소방서
타임스퀘어
1호선 영등포역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서울대 신도시에 투자가치로 빛난다
문의전화 02)6334-9395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